

뉴질랜드 “마오리족”

글 · 사진/허용선(건강 칼럼니스트)

세 계에는 적지 않은 원주민들이 숨겨진 오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의료혜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나라의 평균수명도 못미치는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도 18세기 백인이 들어오고 난 후 전염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한 때 50만명이 넘는 인구가 4만명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계몽과 마오리족의 진취적인 태도로 인해 지금은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사회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는 나라로 국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은 뛰어나다. 평균수명도 캐나다나 영국 못지않은 장수국을 자랑하는데 깨끗하고 맑은 자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풍토에 크게 기인한다. 과거에는 단명했던 마오리족도 근년에 이르러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고있으며 90세를 넘는 노인도 종종 만날 수 있다.

마오리족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려면 로토루아로 가야 한다. 뉴질랜드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인 오클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2시간 내려가면 만나는 아담한 도시이다. 골짜기마다 하얀 김이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화산지대로, 하늘 높이 뜨거운 지하수를 뿜어올리는 간헐천도 있는 곳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험악하게 생긴 마오리족 남자가 다가와 “흥기”라는 인사를 한다. 이 인사법을 서로 코를 각각 다른 편으로 두 번 맞대는 것이다. 멀리서보면 키스하는 모습이라 한국에서 관광객으로 온 여성들은 질겁을 하며 피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오리족은 호전적인 종족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던 50개가 넘는 종족끼리 서로 치열한 살육전을 벌리곤 했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습관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부족의 흥행성을 과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웃 부족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을 돼지우리에 넣어 짐승처럼 부리다가 행사날 잡아 먹었다. 현재 이런 풍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약 20년 전 사람고기 맛을



◀ 하늘에서 내려다 본 뉴질랜드의 모습은 짙은 초원의 연속이다. 깨끗한 환경은 장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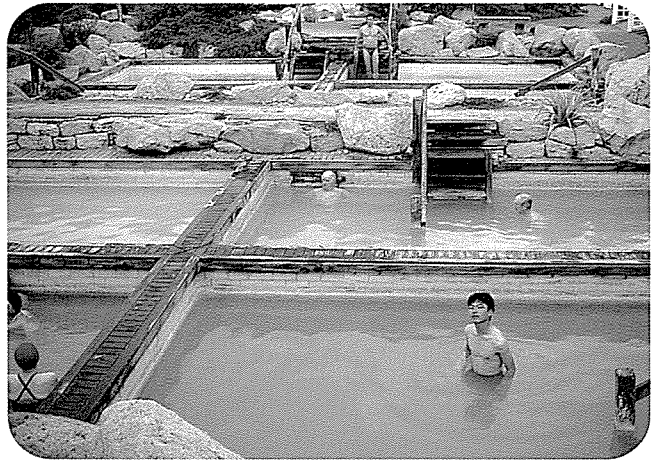


▶ 천연온천인 폴리네시아 플에서 목욕이나 샤워는 건강에 좋다. 마오리족은 예로부터 온천물을 유용하게 사용해 왔다.

본 마지막 마오리족 남성이 죽었을 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마오리족의 수명이 늘고있는 데에는 확실한 의료혜택과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소의 줄리오 리시니오 박사는 스트레스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이 면역세포에 달라붙어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는 단백질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티졸의 과다 분비는 알츠하이머병 및 우울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코티졸 수치가 낮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폴리네시아 플은 로토루아 호숫가에 있는 온천인데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이곳에서 지친 몸의 피로를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샤워는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온천 목욕은 근육을 풀어주고 두통을 없애며 원기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 사람에게 샤워는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두통 해소·원기 증진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등을 빼근할 때는 물을 약간 미지근하게 틀고 등을 따뜻한 물줄기에 갖다댄다.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수세미나 샤워 솔로 몸을 문지르면 원기를 북돋우는 데 효과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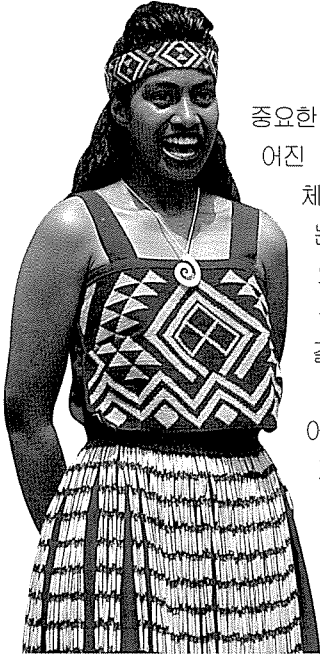
마오리족이 즐겁게 사는 모습은 그들의 고유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토루아의 오희네무투 마오리 마을에선 정기적인 춤공연이 개최되는데 풀잎으로 만든 전통의상을 입은 20명 정도의 남녀 마오리족이 나타나 춤을 춘다. 여성들이 추는 포이춤은 우아하다. 갈대의 일종인 피우피우로 만든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은 손에 든 하얀 포이를 아래 위로 흔들며 춘다. 하얀 포이 모습은 뗏다가 가라앉곤 하는 바다의 물보라를 상징한다.

남성들이 추는 춤은 격렬하나 강약의 조화를 잘 이룬다. 마오리족 남성은 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간혹 눈을 부릅뜬 채 일체히 혀를 내밀기도 한다.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운 동작이나 이들에게는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데 중요한 동작이라고 한다.

유형냄새가 물씬 풍기는 화카래와레에는 마오리족 요새촌이 있다. 아트막한 언덕에 둥그렇게 방책을 두른 곳이다. 요새촌 안의 마오리족 집회소는 다른 부족과의 전쟁이나

▲ 과거에는 단명했던 마오리족이지만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혜택과 마오리족의 식생활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고있다.

◀ 마오리족 여성은 고유의 춤을 출때 도이춤이라는 우아한 동작을 취한다.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 등을 논의할 때 마오리족이 모였던 곳이다. 붉은 색으로 이루어진 목조가옥인 집회소는 구조부터가 독특하다. 마오리족은 이 건물을 자신의 신체처럼 여겼다. 즉 서까래는 갈비뼈, 정면의 두 기둥은 양팔, 지붕 꼭대기에 있는 가든은 얼굴, 웅마루는 척추로 생각했다. 목공예 솜씨가 뛰어난 마오리족은 요새 방책의 끝부분에 전사들의 모습을 한 조각상을 세웠다. 눈에는 번쩍거리는 조개껍질을 붙여 웅맹스럽게 보이도록 했다. 적을 경멸하는 뜻에서 혀를 길게 내밀은 전사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오리족 여성들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면 향기를 이용한 고유음식을 만들어 내놓는다. 향기는 일종의 찜통으로, 온천과 간헐천이 많은 로토루아에서 뜨거운 지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힌다. 고기와 야채를 큼직큼직하게 썬 후 자루에 넣어 향기 속에 넣어두면 3-4시간 후엔 뜨거운 온천 증기에 익혀진 단백한 음식이 만들어진다. 음식재료는 고구마, 돼지고기, 훔할 등이 널리 사용된다.

마오리족 여성들의 결혼관 역시 흥미롭다. 보통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데 특별한 결혼의식을 갖지 않는다. 또한 마오리 사회에선 혼전 성경험을 바람직하게 여기기 때문에 숫처녀로 결혼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근래 백인들 사이에서는 마오리 문화의 보존에 관심이 집중되어 마오리어를 사용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앞장 서고 있다.

백인이 들어오기 전 뉴질랜드의 선주민이었던 마오리족은 9-14세기에 걸쳐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폴리네시아 계통의 종족이다. 현재 350만 명 정도의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족이 차지하는 인구수는 약 50만명 이다.

마오리족은 뉴질랜드를 “아우테아로아” 즉, 흰 구름이 길게 드리운 곳이라고 불렀다. 영혼의 북쪽 회귀를 믿는 그들은 사후에 하와이키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여기에서 하와이키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들과 그들의 자손인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맨처음 살았던 지상낙원을 가르킨다.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최북단인 레인고누 꽃이 하와이키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여 이곳을 신성시한다. 72



▲ 가두어 키우지 않고 방목하여 키우는 가축이 사람 몸에는 좋다.